

지역 강점 살린 균형발전정책 필요

지역발전위 주최 토론회

혁신도시 성장지점 구축

지자체 주도 체계 마련해야

지역 낙후도나 인구 등 특성을 감안한 지역맞춤형 국가균형발전정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각 지역의 경쟁력과 장점을 극대화해 고르게 성장하자는 국가균형발전정책 도입 취지를 상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균형발전 지원체계 개편 및 혁신도시 중심의 신지역성장 거점 조성을 위한 국가균형발전정책 광주·전남 토론회가 지난 12일 광주시청 2층 회의실에서 열렸

다. 지역발전위원회(이하 '지역위')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광주시와 전남도 주관으로 마련된 이날 토론회는 송재호 지역위 위원장의 인사말, 축사, 국가균형발전정책 과제 발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하 '균특법') 개정안 설명,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균특법은 참여정부에서 제정된 이후 2009년, 2014년 등 2차례 개정됐으며, 이번 주요 개정안은 국가균형발전 거버넌스 및 지원체계를 개편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지역정책 방향을 '국가균형발전'으로 명확히 하고 지역발전위원회 명칭도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복원해 위상과 권한을 강화했다. 또 지역혁신체계 구축을 위한 지역혁신협의회 및 지역혁신지원단 설치

등도 명시했다.

토론회에서는 국가균형발전 거버넌스 및 지원체계 개편, 혁신도시 중심의 신 지역성장 거점(국가혁신클러스터) 구축, 균형발전 관련 제·개정, 지역 고유 정신문화 및 지역가치 발굴·선양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나주몽 전남대 교수는 "지역 특성을 반영하고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현재의 낡은 지역정책을 폐기하고 새로운 지역 주도 균형발전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으며, 윤희철 광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부장은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시·도 중심의 효율적 추진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안전도시 만들기 광주시는 지난 13일 시, 광산구청, 안전모니터봉사단, 광산구 자율방재단, 안전관리 전문가 등 2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참가자들은 유동인구가 많은 광주송정역에서 안전사고 예방 홍보 캠페인을 펼치고, 3개반 40여 명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점검반이 광산구 송정1동, 송정2동, 도산동 등 3개 동의 골목길, 축대, 보도, 소규모 옹벽, 학교 주변시설 등을 점검했다. <광주시 제공>

광주시, 산단·건설현장 오염 배출 점검

광주시는 오는 17일부터 11월3일까지 산업단지 안팎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해 시민·환경단체와 함께 민관합동 지도·점검에 나선다.

민·관합동점검반은 시민단체, 민간자율감시단 등과 시 환경단속공무원을 포함해 5개반 총 10명으로 편성했다.

합동점검반은 주로 무허가(미신고)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와 환경오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적정 운영 여부 등을 점검한다.

시는 이번 점검에서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정한 법 집행은 물론, 행위자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시 홈페이지에 위반 내역을 공개할 방침이다.

경제적 어려움과 시설관리 전문성이 취

약한 영세사업장에 대해서는 광주녹색환경지원센터를 통해 시설의 안정적 운영방안 제시 등 기술지원도 병행해 기업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6차례 민관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해 위반 사업장 8곳을 적발, 행정처분했다.

한편 시는 날립(비산)먼지 발생을 낮추기 위해 오는 23일부터 11월17일까지 관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197곳을 특별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가을철 건설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비산먼지로 인해 미세먼지 농도가 증가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마련됐다.

/유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장현 광주복지재단 대표

고려인마을 감사패 받아



광주복지재단 장현 대표(사진)가 15일 제5회 고려인의 날을 맞아 광주 고려인 마을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장현 대표이사는 울조 발착한 고려인 강제이주 80주년 기념행사 추진위원을 맡고 있다.

특히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는 고려인 학생들의 장학금 마련에 공헌했다. 올해는 최알렉산드르 양의 대학등록금을 지원하는 등 도움을 아끼지 않았다.

지난달 20일에는 (주)광주순환도로투자사업협약을 맺어 1000만원을 고려인마을에 장학금으로 기탁했다. /오광록기자 kroh@

유광중 광주도시공사 사장 직무대행

“광주 성장 앞장...사회환원 강화”

광주 최대 공기업의 수장으로 최근 취임한 유광중(65·사진) 사장 직무대행 겸 경영본부장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넘쳤다. 그는 "시민에게 희망과 행복을 주는 1등 공기업"이라는 광주도시공사 본연의 미션을 수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유 직무대행은 광주시 공무원으로 정년퇴직 후 2011년 6월부터 3년간 도시공사 경영본부장을 지낸 바 있다. 공사의 내부 사정에 대한 충분한 인식과 경험, 조직경영에 대한 노하우를 심분 발휘하겠다는 각오다. 지난달 22일 취임과 함께 우선 수장 공백으로 지연됐던 직원 인사를 단행하며 침체한 조직의 사기를 진작시켰다. 도시첨단산업단지, 영구임대아파트 등 사업현장을 모두 둘러본 뒤 문제점 분석과 향후 계획을 제시하는 것도 서둘러 마쳤다. 다음은 일문일답.



로, 도시개발, 택지개발, 주택공급, 시설관리 등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다. 이 모든 사업이 시와 시민을 위한 것이다. 농성동, 주월동, 하남3지구 등 3곳에 영구임대아파트를 공급하고, 전남어촌돌기 등 사회공헌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시민들이 이를 체험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

-전일빌딩, 도시첨단산업단지, 에너지밸리 일반산업단지 등 현안에 대해 설명해달라.

▲지난 8월 총단 흔적이 발견되면서 전일빌딩에 대한 시민의 관심은 높아지고 있다. 앞으로 보수·보강공사를 포함해 내부시설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후 공공전자도서관, 시민생활문화센터, 남도관광홍보마케팅센터 등 시민 문화공간과 ICT 콘텐츠 기업, 창조기업 등 ICT 기업공간, 그리고 문화예술스튜디오, 문화예술체험관, 콘텐츠 영상 미디어 센터 등 투자진흥지구 업무지원시설 등이 입주할 예정이다. 남구 도시첨단산업단지의 현재 기반조성공사 공정률은 41%로, 올 연말까지 60%를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사업비 2978억원이 투입돼 2017년 말 공사에 들어가 2021년 준공할 예정이다. 현재 광주시의회 사업추진 동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의 절차를 완료했고, 오는 10월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를 통해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받을 계획이다.

9개월 만에 매운 공백 책임감

도시첨단산단·에너지밸리 등

현안 사업 차질 없이 추진

성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하지만 기회와 위기는 한 몸이며, 충분히 극복 가능한 문제다.

-구체적인 극복 방안은 있다.

▲우선 비상경영체제 운영을 통해 경영 안정성을 강화하겠다. 매각 가능한 자산을 현금화하고 토지분양에 노력해 적정 매출액 확보에 총력을 다 할 방침이다. 신규사업의 자금조달방식을 다양화하는 한편 현재 추진 중인 남구 도시첨단산단조성사업과 에너지밸리조성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겠다. 중장기 사업계획을 재정비하는 등 체계적인 사업기반을 구축하는 것도 시급하다.

-도시공사가 공공성에 미흡하다는 평가가 있다.

▲현재 상황은 그리 밝지만은 않다. 지난해까지 나주 빛가람공공혁신도시, 진곡산단단지조성사업 등 주요 핵심사업이 마무리되면서 수익이 감소하고 있으며, 현재 추진하고 있는 도시첨단산단사업, 첨단3지구 등의 사업이 시작단계에 있어 많은 자금이 투입되고 있다. 재무적인 성과가 감소하면서 경영 안정

▲올해 공사의 예산은 1577억여원으

▲앞으로 지역민이 공사 경영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해 각종 경영 정보 공개를 확대해 나가겠다. 사회공헌 활동 역시 보다 강화하겠다. 지역 대표 공기업으로서 지역민과 함께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모든 임직원이 노력하겠다.

/유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시, 근육장애인 실태조사 등 복지 강화

광주시가 내년 상반기 근육장애인을 위한 시범사업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광주시 근육장애인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실태조사, 중증장애인활동보조 지원 규모 확대 등도 검토한다.

광주시는 15일 “전기자동차 모범 도시상”(E-Visionary Awards) 수상을 위해 지난 8일부터 독일 출장을 갔던 윤광현 광주시장장이 12일 귀국 직후 근육장애인연대와 면담해 관련 대책 수립을 약속


했다"고 밝혔다. 시는 윤 시장 면담 직후 근육장애인정책연대 대표 등 20여 명과 1차 실무회의를 가졌다. 별도의 TF팀을 구성하는 방안 등을 논의한 뒤 내년 상반기 중 근육장애인을 위한 시범사업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중증장애인의 안전 및 복지 지원을 목적으로 24시간 중증장애인활동보조 서비스를 10명에게 제공해 온 시는 이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광주근육장애인정책연대는 윤 시장에게 생존권 보장을 위한 정책질의서를 전달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이에 윤 시장은 “SNS 등을 통해 장의 선 회장과 소통하면서 근육장애인들의 어려움에 대해 느끼고 있었다”며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아픔을 나누지 못해 안타깝다”고 설명했다.

시는 민선 6기 출범 직후 최초로 ‘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보조사업’에 나서 전국적 주목을 받았으며, 이어 전국 최초로 ‘발달장애인지원사업’을 수립하기도 했다.

/유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지오옥션 부동산 중개법인(주)
20년경력 조여사 010-6211-4585

경, 공매 컨설팅

수익형 추천

- ★ [건물] 광산구 월곡동 복합스포츠타운 수익률최상 대지 3,906㎡ 건물 2,689㎡
매매 81억 투자자가 (수영장, 키즈카페, 사우나)
- ★ [건물] 서구 쌍촌동 메인상권 지하2층 지상10층 (사옥최적합 대로변, 병원가능)
대지 777㎡ 건물 5,900㎡ 매매 55억 (보17억1천 월1천1백 5십만)
- ★ [건물] 동구 동명동 대로변접 상가주택건물 5층
대지 452㎡ 건물 1,464㎡ 매매 17억 (사우나)
- ★ [건물] 광주 광산구 송정동 일반상업지역 위치좋은 상무대로변 대지 1342㎡ 건물 413,49㎡ 매매 49억 (주상복합, 쇼핑타운적합부지)
- ★ [건물] 광주 동구 지산동 중심상권 상가 밀집지역 위치좋은 지하층~지상5층 대지 198㎡ 건물 729㎡ 매매 25억 (보5억6천500만)

병원

- ★ [의료시설] 광산구 신가동 요양병원 지하층~지상4층
대지 3,000㎡ 건물 3,568㎡ 매매 56억
- ★ [의료시설] 광주시 남구 주월동 지하층 지상7층
토지 1,490㎡ 건물 6,646㎡ 최신시설 매매 75억
- ★ [의료시설] 광주시 서구 농성동 지상5층
토지 2,319㎡ 건물 3,998㎡ 매매 73억
- ★ [의료시설] 광주시 북구 신안동 지하층 지상4층
토지 330㎡ 건물 995㎡ 최신시설 매매 30억 월수익1천5백만
- ★ [의료시설] 전남 화순읍 신기리 지하층 지상4층
토지 8,630㎡ 건물 6,300㎡ 매매가 (상담요양)

토지 추천 물건

- ★ [토지] 제주도 강정마을 (펜션, 타운하우스부지) 바다 한라산 조망권최상 대지 15,716㎡ 매매가 평당220만원(교환, 조정가)
- ★ [토지] 전남 함평군 대동면 금곡리 대규모 펜션 카페대지 15,668㎡, 건물 900㎡
미래가치우수 인근 27홀 골프장 시설 부지 확정
- ★ [토지] 동구 자산유원지 대로변접 자연녹지지역
대지 1,948㎡ 매매 27억 7천만 카페거리상권
- ★ [토지] 담양군 창평면 삼천리
대지 3,041㎡ 매매가 평당70만원(조정가)
- ★ [토지] 담양군 창평면 장화리
대지 7,226㎡ 매매가 평당50만원(조정가)
- ★ [토지] 전남 장성군 서삼면 추암리 편백나무숲길
대지 2,720㎡ 매매7억 펜션부지, 전원주택 적합

광주, 전남 병원건물(요양, 한방) 매매, 임대, 다량보유 / 사우나건물 전문상담

공인중개사 김재훈 062-714-2251